

밀양 고법리 벽화묘에 대한 연구

이 동 주*

<목 차>

- I. 머리말
- II. 무덤의 구조와 내용
- III. 벽화의 내용과 특징
- IV. 문헌 검토와 벽화묘의 성격
- V. 맺음말

국문요약

고법리벽화묘는 고려시대의 벽화묘 전통이 조선시대 초기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시켜준 유적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조사가 이루어졌던 고려시대의 벽화묘나 최근 조사된 조선시대의 원주 동화리벽화묘 등 우리나라의 벽화묘는 星宿圖(천문도)를 포함하여 사신도와 12지신이라는 공통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법리벽화묘의 경우 일상 생활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판이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묘제에 있어서도 隨道가 나타나는 등 이전의 유적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유구의 성격규명을 통해 조선 초기 묘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문헌 자료를 통하여 隨道를 포함한 유구의 특징과 함께, 이 고분에 星宿圖가 확인되지 않았던 이유를 규명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조선 초기 단계의 한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벽화의 내용과 그 원류에 대한 중국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 내용의 의미는 墓主에게 祭禮를 행하는 것이며, 주제는 중국 宋代 이래로 茶禮가 중요한 벽화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헌에 나타나는 晝茶禮의 행위로 파악하였다. 또한 고법리 벽화는 이 내용을 계승한 元代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墓主의 초상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와 2마리의 말과 마부 그림에 대한 해석, 花紋石의 성격규명을 시도하였다.

주제어 : 고법리벽화묘, 星宿圖, 晝茶禮, 제례, 사신도, 12지신, 묘주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I. 머리말

2000년 9월, 초가를 태풍이 지난 후 발견된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벽화묘는 우리나라 고고미술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를 그을 수 있는 중요한 발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무덤은 고려 말에 활약하였던 송은(松隱) 박익선생의 묘로서 몰락하는 고려조정을 지지하였던 두문동 72현 중의 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묘지명에서는 1420년(세종2년)에 무덤을 조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 즉 고려말에 활동하다 조선 초에 이 무덤이 조성된 실연대가 확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발굴자료가 급증하면서 이 분야 연구가 진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과도기에 해당하는 麗末鮮初의 성격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점에서 이 고분의 묘제와 내용면이 차지하는 고고학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묘가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묘실에 그려진 벽화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고분벽화가 등장한 것은 낙랑의 문화를 수용한 고구려를 통하여 4세기 후반 경에는 이미 시작되면서 고대사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주었지만, 이 전통은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단절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비롯하여 그 전통이 고려시대로 이어졌던 흔적은 태조왕건릉이나²⁾ 개성 수락암동 1호분³⁾, 법당방고분군⁴⁾, 공민왕릉⁵⁾ 등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고법리벽화묘의 발굴을 통하여 조선시대 벽화분으로서는 처음 확인된 유적일 뿐만 아니라 최근 확인된 노회신묘⁶⁾와 비교하더라도 지금까지 알려졌던 벽화내용들과는 그 주제와 구성면에서 판이한 차이점을 보이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즉 다른 고분들이 모두 12지신을 중심으로 사신도 등 주로 방위신과 관련되는 다소 추상적 개념의 획일적 내용이라고 한다면, 고법리벽화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麗末鮮初의 실 생활상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확인된 벽화고분 중 묘주의 생물연대가 확실한 경우도 왕릉을 제외하고는 거의 드문 편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조사내용과 함께 피장자

1) 沈奉謹, 2002, 『密陽古法里壁畫墓』, 東亞大學校 博物館

2) 김영심, 1993, '고려태조 왕건왕릉벽화에 대하여', 『조선예술』

3) 안희준, 2000, 『한국 회화사 연구』 시공사

4) 李弘植, 1954, <高麗 壁畫古墳 調査記> 『韓國文化叢書』14

5)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V, 서울대학교출판부

6) 國立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桐華里 盧懷愼壁畫墓 發掘調査報告書』

의 생애와 벽화의 분석 및 유물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미처 다루어지지 못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고법리벽화묘의 구조와 성격, 그리고 벽화 내용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무덤의 구조와 내용

고려시대의 묘제는 매장 주체부를 기준으로 석실묘, 석곽묘, 토광묘, 화장묘 등으로 구분된다.⁷⁾ 이 중 석실묘나 석곽묘의 경우는 왕이나 귀족층이 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외 대부분의 경우는 조선시대와 같은 토광묘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 왕릉이나 귀족묘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이전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일찍이 관심을 가져온 고유섭은 “북후방에 주산이 있고 좌청룡, 우백호의 자연구릉의 성이 있고, 좌의 청룡 구릉은 우의 백호구릉보다 길게 앞으로 뻗어 묘지의 전면을 감싸고 그 안에서 하천이 흘러 묘전을 돌아 우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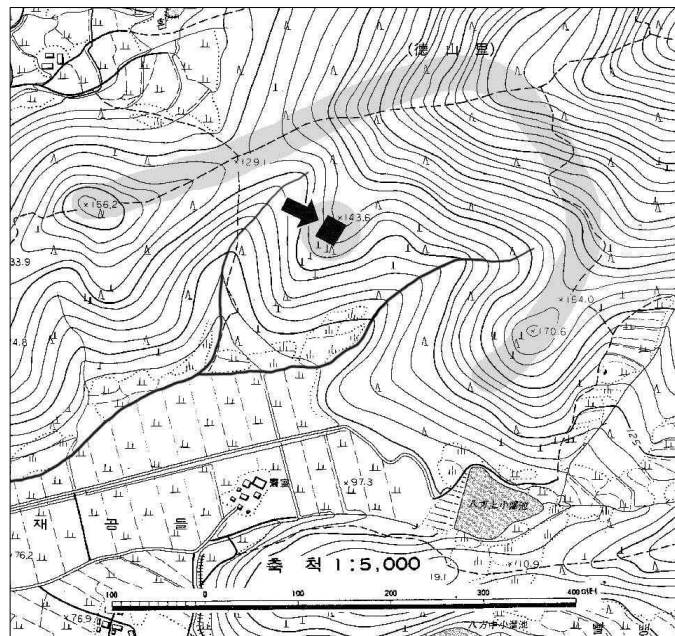


그림 1. 고법리 벽화묘의 지형과 위치

⁷⁾ 김원룡, 1999, 『한국의 고분』 교양국사총서 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쪽으로 나가며, 묘의 전방 뜰을 건너서는 조산이 있는 지형”이라 하였으며⁸⁾, 이후 김원룡은 “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잡아 좌청룡, 우백호의 산줄기가 릉 뒤의 主山에서 좌우로 뻗어 내리고 主水는 陵 우측, 즉 서쪽에서 시작되어 릉 앞 동쪽으로 흘러가는 지세를 택한다.”고 하였다.⁹⁾

한편 북한의 개성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고려왕릉을 조사한 왕성수는 “고려의 무덤 위치는 대체로 공통된다. 즉 남향한 산기슭 또는 산중턱에 왼쪽으로는 시냇물이 흘러내리고 바른쪽(동쪽)으로는 산 능선이 뻗어서 서남쪽으로 구부러 지듯이 보이는 아늑한 산기슭에 자리잡았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곳은 인공적으로 돌담 같은 것을 쌓아서라도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려 하였다.”¹⁰⁾고 하고 있다.

즉 고려시대 고분의 입지선정에는 일정한 규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신라 말, 도선을 필두로 하여 크게 유행하였던 지리도참(風水地理)사상이 고려에 이어지면서 무덤의 입지에까지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¹¹⁾ 고법리벽화묘의 입지선정도 이상 살펴본 선학들의 검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화악산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지점에 위치하며, 고분 뒤쪽으로부터 양쪽으로 지맥이 뻗으면서 동청룡과 서백호가 형성되고 약간 서남향한 산중턱에 시냇물이 흘러내리면서 고분을 감싸는 전망 좋고 아늑한 지형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구조는 묘역과 봉분, 그리고 매장 주체부인 석실로 구분된다. 현재 확인된 고법리벽화묘의 경우는 2단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후손들의 묘소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원래 구조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본이 되었을 고려 왕릉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려왕릉은 주로 당시 수도였던 개성일대에 분포하고 있는데, 북한학자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위치선정과 묘역, 주위의 석조물 배치 등 외형상으로 전후시기와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¹²⁾

이 중 현릉(태조왕건릉)과 정릉(공민왕릉), 7릉군이 비교적 완전한 형태를

8) 고유섭, 1946, 『송도고적』 박문출판사

9) 김원룡, 1974, 『한국의 고분』 교양국사총서,

10) 왕성수, 1990, <개성일대 고려왕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90-2

11) 고려 태조의 훈요10조를 통해서 볼 때, 태조의 정치이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상은 불교와 지리도참설, 유학이었다. 불교와 지리도참설은 새 왕조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으며, 유학은 정치의 실제적인 실천윤리로서 존중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國朝五禮儀》 治葬條에도 장례는 風水에 의하여 입지를 선정할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문헌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

12) 왕성수, 1990-2, <개성일대 고려왕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갖추고 있다. 산 남쪽 경사면에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땅을 구획하여 角牆을 설치하고 구역을 4개의 단으로 구분하고 매개 단의 안쪽은 네모난 돌로 쌓고 둘째단으로 연결하였으며, 묘역의 길이와 폭은 2:1 정도 되게 잡았는데 남북길이 36m, 동서 폭은 약 18m 정도이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제1단은 무덤이 위치하며, 높이 3~6.5m, 폭은 6~9m 정도이다. 봉분은 원형이며 아래는 12면의 병풍석으로 돌리고¹⁵³ 그 주위에는 병행하여 난간석을 두었으며, 그 둘레에는 돌 짐승¹⁵⁴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무덤 정면에는 장방형의 돌상을 두고 그 좌우 양쪽에는 망주석을 세우고 있다. 제2단은 정면에 長明燈을 세우고 그 좌우에 돌 문인상을 마주 세웠으며, 제3단에는 무인상을 마주보고 세웠다. 그리고 제4단은 넓어지면서 정자각이 있고, 그 앞은 경사지며 아래에 능비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고려 초기의 왕릉에는 문관상만 배치된 것이 상례이며, 문관상과 무관상이 함께 배치된 것은 후기 왕릉들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시설물의 기준에 따라 묘역 구획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태조 왕건의 顯陵을 비롯한 10세기와 11세기에 속하는 왕릉들은 3단 구성을 이루고 있고, 그 이후에는 강화도의 가릉이나 곤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4단 구성의 기본이 되고 있다¹⁵⁵. 또한 초기 왕릉에서는 형상적으로 조각되었지만 공민왕릉에서는 조형 예술적으로 매우 우수한 조각품으로 조각하였으며, 돌짐승도 초기에는 4개가 상례지만 공민왕의 현릉과 정릉에서는 각각 8구씩 두고 있다.

근년 조사가 이루어졌던 강화도일대의 고려왕릉에 대한 조사결과¹⁶⁰로 참고할 수 있다. 이 왕릉들은 모두 무인정권기의 江都時期(1232~1270)인 1237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능선을 따라 묘역을 구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장방형을 띠며 석축을 쌓은 4단이 기본이지만, 5단이 되게 한 경우도 있다. 즉 고려 21대 희종 무덤인 碩陵의 경우, 그림 2-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5단의 단상구조를 이루고 있다.¹⁷⁷ 각 단의 역할에 대해서 제1단은 봉분과 冂형의 曲牆이 조성되어 있으며, 서쪽 담장 앞에는 머리와 몸통이

¹⁵³ 일부 병풍석에는 12지신상이 새겨져 있으며, 병풍석은 방위확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한다. 고려왕릉들은 무덤의 정면을 제7면 午石으로 하는 것을 상례지만 쌍분으로 나란히 조성된 현릉과 정릉(공민왕릉)의 경우는 무덤의 정면을 제6면 巳石과 제7면 午石을 정남으로 하고 있다.

¹⁵⁴ 돌짐승은 방형 좌대 위에 앉았고, 4방위에 각각 1개씩 배치되었으며, 앞발은 세우고 뒷발은 굽히고 꼬리를 내린 형태이다.

¹⁵⁵ 李義仁, 2006, <京畿地域 高麗古墳의 構造와 特徵> 『고려시대의 고고학』 2006년도 서울경기 고고학회 학술대회

¹⁶⁰ 國立文化財研究所, 2003, 『江華碩陵』,

¹⁷⁷ 前掲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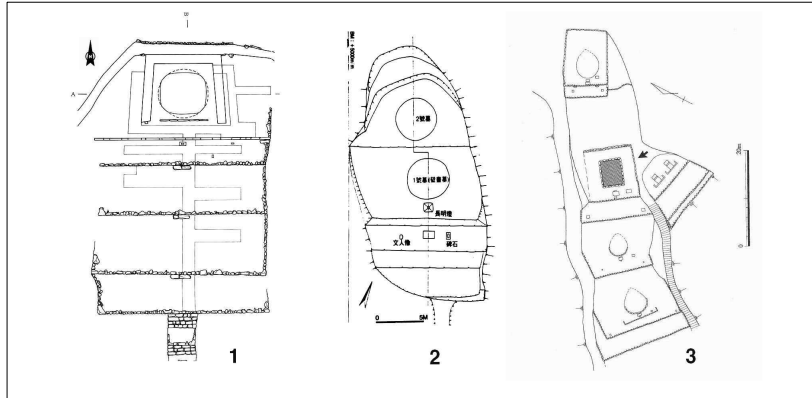


그림 2. 고려 묘역이 비교(1: 강화 석릉, 2: 파주 서곡리벽화묘, 3: 밀양 고법리벽화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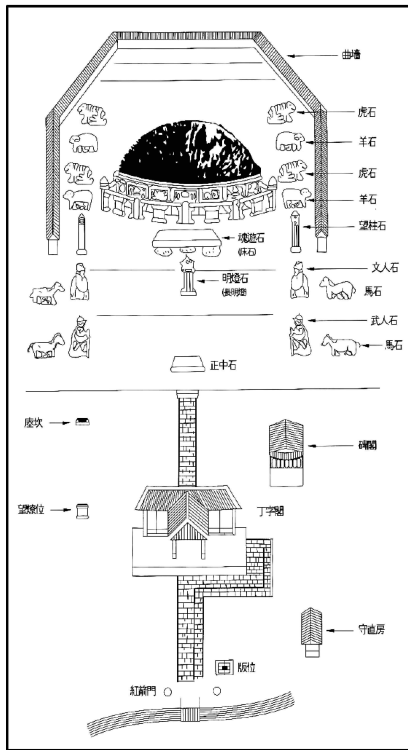


그림 3. 조선시대 왕릉의 시설배치와 구조 (이정선, 2008에서 전재)

분리된 문인석 1기가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2단에는 중앙에 능비와 동쪽 편에 문인석 1기가 있을 뿐 이외의 기타 석물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3단 이하는 뚜렷한 석조물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후대에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같은 강화도에 위치하고 있는 嘉陵은 고려 24대 원종비인 순경태후의 무덤으로 특이하게 曲牆이 없는 지상식 석실을 조성하였는데, 상부를 적석으로 덮은 후 봉토를 입힌 특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⁸⁾ 묘역은 전체를 석축으로 둘렀는데 2단 구성으로 보이지만, 그 아래쪽으로도 어떠한 시설물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왕릉에 부속되는 丁字閣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묘역은 원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22대 강종비인 원덕태후 무덤인 坤陵은 1239년에 조성된 것인데, 이 역시 높이에 따라 낙차가 큰 곳에 짧은 단을 두고 있으나 크게 보아 3단으로

¹⁸⁾ 國立文化財研究所, 2007, <嘉陵>, 『江華 高麗王陵』

조성되어 있다.¹⁹⁾ 왕릉은 석실의 규모가 크고, 석물의 종류와 양이 많을 뿐 아니라 모두 정자각이 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귀족묘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전통은 그대로 조선시대로 이어져 그림 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능역조성과 시설배치의 규범이 나타나게 되었다.²⁰⁾

한편 귀족묘로 분류되는 파주 서곡리벽화묘의 경우에는(그림 2-2) 발굴과정에서 “有元高麗國三韓壁上功臣 三重大匡 吉昌府院君 權公墓地銘并序”라고 새겨진 묘비가 출토되어, 묘주가 權準(1281~1352)이며, 조성 연대는 고려 공민왕 2년인 1352년으로 밝혀졌다.²¹⁾ 정2품의 僉議贊成事를 지냈으며, 여기서도 묘역이 모두 4단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단에는 묘와 마주하는 중앙 지점에 長明燈이 위치하고 있으며, 좌우에는 석수가 1점씩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제2단에는 중앙의 상석을 기준으로 서쪽에 문인상, 동쪽에는 비석이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아무런 시설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법리벽화묘의 경우에도 현재 묘역은 근대에 이르러 위쪽과 아래쪽으로 후손들의 묘지가 조성되면서 2단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단에는 봉분 뒤쪽으로 석축 4~5단으로 내탁하여 ㄱ형의 曲墻을 조성하였으며, 그 아래로 봉분과 魂遊石, 床石, 香爐石이 나란히 배치되고, 동쪽에는 석비가 위치하고 있다.²²⁾ 그 아래의 제2단에는 문인석이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이곳이 묘주가 있는 제례공간임을 알 수 있으며, 배석자들을 위한 배례공간을 가정하면 원래 묘역은 3단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석실의 규모와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분의 규모는 길이 605cm, 폭 482cm, 봉분의 높이는 210cm이며, 석실 바닥에서는 410cm 가량이다. 《高麗史》 형지의 기록에 보면 976년에 문무양반의 무덤 크기를 정하고 있는데 “1품은 넓이가 90보, 2품은 80보이고 무덤 높이는 1장 6척으로 하며, 3품은 70보에 높이 1장, 4품은 60보, 5품은 50보, 6품 아래로는 모두 30보이고 높이는 8척을 넘을 수 없다”라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 營造尺의 1척은 30.785~31.027cm로 알려지고 있는데²³⁾ 여기에 따르면 1품의 봉분 높이는 대략 4.9m 가량이며, 6품 이하는 2.5m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⁴⁾

19) 前掲書

20) 李貞善, 2008, 『조선 전기 왕릉 石人·石獸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년도 석사학위논문

21)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坡州 瑞谷里 高麗壁畫墓』

22) 석비는 墓碣銘의 내용으로 보아 通訓大夫 淸州牧使 淸州鎭 兵馬僉節制使 上黨守城將 李彙寧이撰하여 1883년 세워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23) 윤장섭, 1975, <한국의 영조척도> 『대한건축학회지』19-63,

24) 國立文化財研究所, 『江華碩陵』 2003에서 재인용

1보는 6척에 해당하므로 ≒18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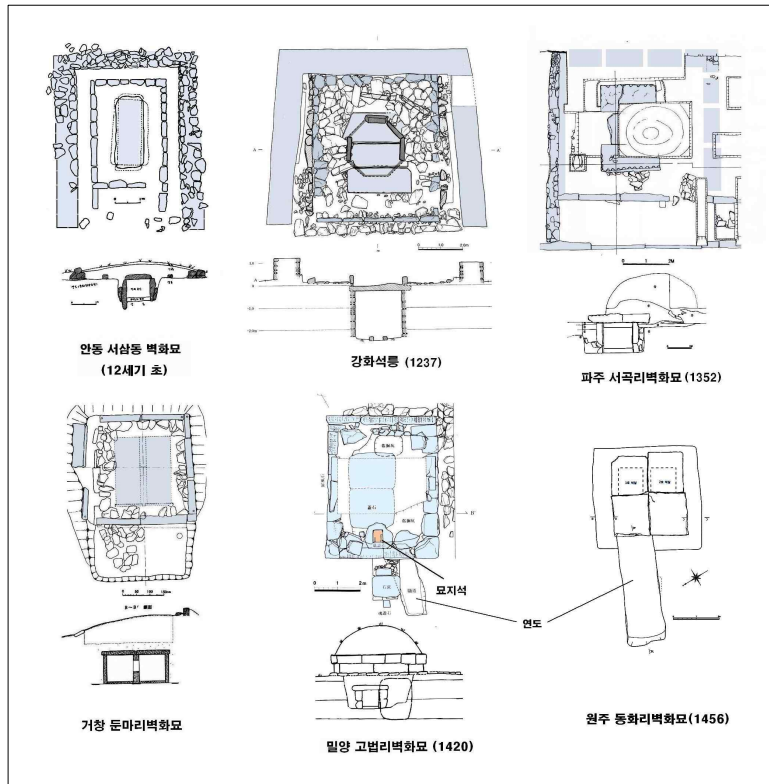


그림 4. 고법리 벽화묘의 평면구조와 관련 벽화묘

그림4에 의하면 고려 벽화묘는 모두 석실 상부의 외곽으로 방형의 護石(병풍석)이 배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왕릉을 제외하고 屏風石을 갖춘 것은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자료로서는 고법리벽화묘분이 유일한 셈이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태조 乾陵을 비롯하여 정종 후릉, 태종의 헌릉 등 전기 왕릉에서도 보이고 있다. 고려의 병풍석은 12간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7세기 대 신라 왕릉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그 전통이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초기 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병풍석과 12支 사상은 매우 한국적인 독특한 전통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귀족묘의 경우는 형식만 빌려 왔을 뿐 거의 護石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왕릉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법리벽화묘의 경우는 그림4에 나타나듯이 입구 쪽에 隨道라는 독특한 구조가 확인되었다. 隨道는 묘실 토갱과 같이 암반층을 남쪽으로 비스듬히 굴착한 장방형 토갱이다. 깊이는 석실 바닥보다 약간 낮고 바닥은 남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조성한 것인데, 바닥에는 할석이 깔리고 그 위에는 굴착한 암반 파편들이 채워진 상태였다. 아마 이곳을 통하여 목관을 내부로 옮긴 횡구식석실묘의 墓道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과 함께, 배수구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고 당시 추정하였다.²⁵⁷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삼국시대 백제고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에 나타나는 보령 보령리고분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제11호 석실분의 경우²⁶⁷, 바닥 면에는 회다짐을 하였고, 개폐식 입구를 가진 橫口式石室墳이다. 역시 평면구조와 함께 석실 내부로부터 바깥으로 고랑을 파고 그 내부에는 할석을 깔았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느낌을 준다. 아마 석실내부로 침투한 수분을 배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는 백제 武寧王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⁷⁷ 주로 백제 고분군에서 이러한 전통이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고법리 벽화묘의 경우 배수 목적으로 보기에 규모가 너무 큰 편이다.

그런데 이번 연구과정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시대 世宗때의 《五禮儀》에 의하면 석실 조성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면서 “남쪽 면을 뚫어서 羨道로 삼는다”라는 구절이 확인된다.²⁸⁷ 또한 《承政院日記》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²⁹⁷ 따라서 이 隨道는 횡혈식석실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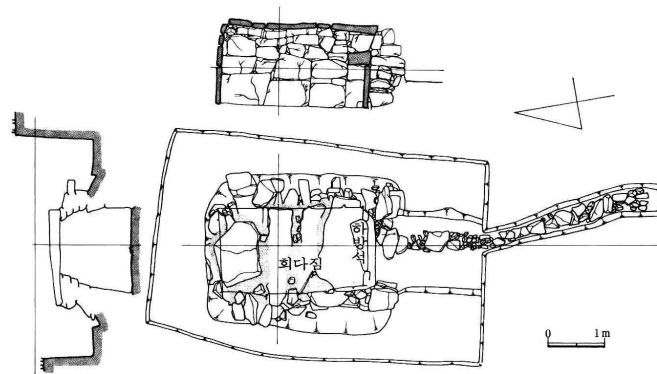


그림 5. 보령 보령리 백제 고분군 제11호분

257 沈奉謹, 2002, 『密陽古法里壁畫墓』, 東亞大學校 博物館

267 成周鐸·車勇杰, 1984, 『保寧 保寧里 百濟古墳 發掘調査 報告書』,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77 文化財管理局, 1973, 『武寧王陵 發掘調査報告書』

287 《朝鮮王朝實錄》 世宗, 五禮儀 凶禮 治葬條 「…開南面以爲羨道」

297 《承政院日記》 인조4년 병인(1626, 천계6) 4월 16일(무자) 「《國朝五禮儀》를 가져다 고찰해 보니, 治葬條에 “광중(壙中)을 팔 때에 깊이는 10척, 너비는 29척, 길이는 25척 5촌이고 남쪽을 터서 羨道와 石室을 만든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옛날의 석실 제도인데…」

羨道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비록 구조는 다르지만 그 전통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지금까지 고려시대 묘제에서 확인된 바 없다.³¹⁾ 때문에 조선시대 전기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판단되며, 아마도 묘주의 혼백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통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식에서는 고법리벽화묘의 묘주인 松隱 朴翊선생묘가 세종 2년(1420) 2월 갑인일에 장사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³²⁾ 이 《五禮儀》는 태종 15년대(1415)에 허조가 만든 원칙에 따라 세종초에 정리되었던 것이 세종실록의 부록에 수록된 것이기 때문에³³⁾ 고법리 벽화묘 조성 당시에는 이러한 규정에 따른 시대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석실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벽화의 내용과 특징

벽화묘는 4벽면 중 북쪽을 제외한 동서장벽의 2면과 남쪽 단벽 1면에서 확인되었다. 원래 4벽면과 천정에 모두 그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발견 당시 북쪽 단벽은 도굴군의 발에 짓이겨진 때문인지 그림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고, 점토를 제거한 후의 적외선 촬영에서도 어떠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천정의 경우도 대부분의 벽화묘에서 星宿圖가 그려지는 것이 상례지만 묘실로 스며든 수분 때문인지 어떠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적외선 촬영결과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벽화는 전체적으로는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단부에는 唐草文과 유사한 雲文을, 중간에는 梅竹圖와 인물 풍속도를, 그리고 하단부에는 벽돌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상 상단부는 하늘을, 하단부는 땅을 그리고 중간 부분은 만물의 활동공간으로 인식하여 공간을 분할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벽인 동벽과 서벽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이 역시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다. 많은 부분이 박락되면서 전체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지만, 잔존 부분에 대한 자료만으로도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1) 조선 전기 묘제의 대부분이 고려시대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확인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32) 沈奉謹, 2002, 『密陽古法里壁畫墓』東亞大學校 博物館

33) 池斗煥, 1985, <國朝五禮儀 編纂過程(1)> 『釜山史學』9

우선 벽화는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그리는 프레스코기법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지만, 분석결과 화강암 관석 위에 석회를 바르고 회반죽이 마른 뒤 목선으로 그림을 그린 세코기법으로 확인되었다. 목선으로 묘사된 형체는 검은 농채와 주황색 담채를 적절히 채색하여 그림을 완성하였다.

그림 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쪽 장벽의 전체적 구성은 4인 1조로 구성된 남녀가 각기 기물을 든 채 북쪽을 향하여 무리를 지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며, 박리가 심하여 양 벽면 아래에 박리된 편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 각 장면 사이에는 梅竹圖를 넣어 경계로 삼고, 한 면에 3개씩 모두 6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은 모두 모두 24명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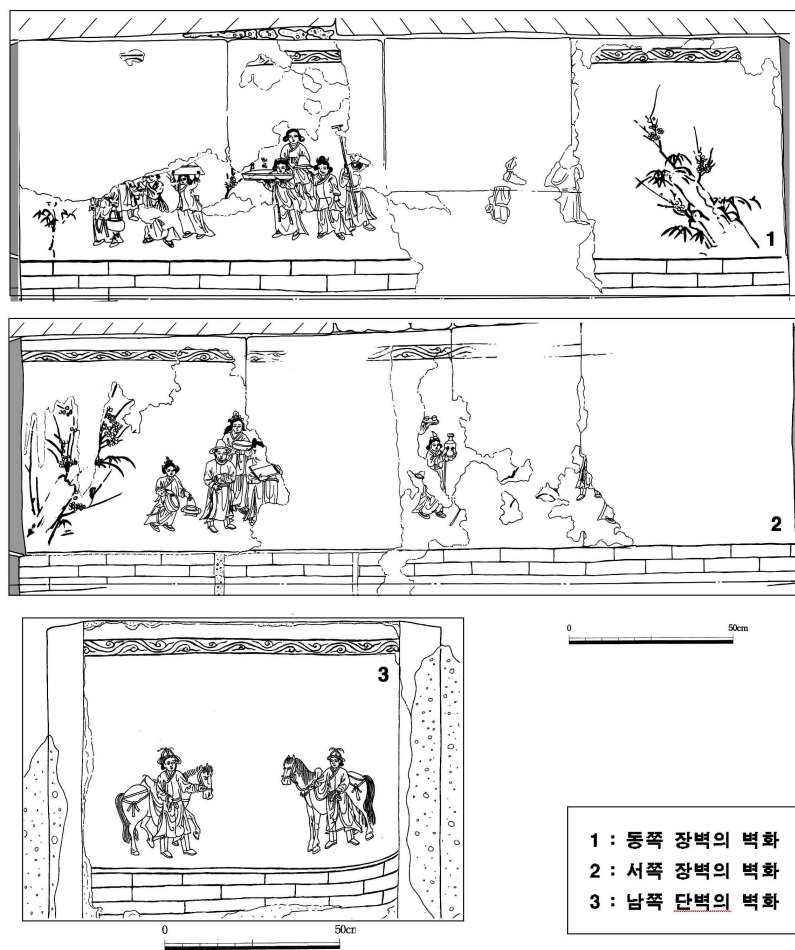


그림 6. 고법리 벽화묘의 벽화내용

또한 4인 1조의 인물들은 삼각구도를 형성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남자들은 垂練髻 두발에 紗帽나 패랭이를 쓰고 옆이 트인 團領의 道袍에 角帶 또는 布帛帶를 허리에 둘렀으며 발에는 가죽 장화를 신었다. 반면 여자들은 품이 넉넉한 交領의 右衽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혜를 신었으며, 머리 모양은 소녀 雙鬢髻나 垂練髻로 꽃 모양의 장식(花飾冠)을 한 채 어딘가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이들이 지녔던 지물은 병과 잔, 덩이 차와 손잡이 달린 물동이와 火爐, 차관(茶俎?), 채, 바리, 무엇인가 들어 있는 듯 이고 있는 함(函), 서책과 모자, 장대(竿) 등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 행열이 향하는 곳은 북쪽 단벽 쪽이다. 그렇다면 이곳에는 묘주의 얼굴이나 이를 상징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도굴과정에서 이를 발판으로 삼아 심하게 훼손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남쪽 단벽부는 다행히 원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2필의 말과 2명의 마부가 그려져 있는데, 마부들은 직령포와 장화, 그리고 鉢笠을 착용하고 있다. 말 1필은 깃털이 세워져 있지만 다른 1필은 늘어져 있어 음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묘주 부부를 위하여 2필의 말이 준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서 각 3 장면 사이와 양끝의 여백에 매죽을 그려 넣었는데,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이나 행기를 잃지 않으므로 선비의 청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¹³⁷⁾ 묘주인 박익의 충절과도 대비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고려 태조 왕건릉와 정종릉 등 10세기 고려초 고분의 전통을 되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확인된 벽화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4부분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도상적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특징과 성격을 주변지역과의 검토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상단의 당초문계 운문과 천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星宿圖의 문제, 둘째, 奇巖怪石과 梅竹圖, 셋째 양쪽 장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持物을 든 인물 군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넷째는 2필의 말과 마부의 벽화내용이 의미하는 바이다.

첫째의 벽화 상단의 雲文은 우리나라 벽화고분의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동강유역의 안악 3호분을 비롯하여 덕흥리 벽화고분 등, 생활상을 표현하는 고구려 벽화고분에서도 흔히 확인되는 것들이다. 그 구성은 하단 벽면에 주인공과 관련되는 현실세계의 표현, 그리고 당초문 띠를 경계로 천상세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최상단에는 대부분 일월과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하는 星

¹³⁷⁾ 안휘준, 2000, 『한국 회화의 이해』, 시공사

宿圖를 그려 天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삼국시대 고구려 벽화고분 이래로 지속되어진 우리나라 묘제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법리벽화묘에 나타나는 당초문계 운문은 벽면 중단의 현실세계와 천정의 천상세계를 구분 짓기 위하여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천정벽면에는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하는 星宿圖가 표현되어야 하지만 발굴과정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적외선촬영결과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이 확인되기는 하였지만³⁴⁾ 매우 불확실한 편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定宗의 安陵(949)이나, 서구릉(10세기), 神宗의 陽陵(1024), 高陵(1297)과 같은 왕릉을 비롯하여³⁵⁾ 안동 서삼동 벽화고분³⁶⁾ 등의 벽화분과 조선시대의 원주 동화리 노회신벽화묘³⁷⁾에서도 星宿圖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전 시기와 조선 전기까지 星宿圖가 유행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문헌 자료를 통한 2가지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世宗實錄》 2년 9월 16일조의 山陵制度 기사에 의하면 「…또 종이로 日月星辰의 天文을 그려서 석실의 개석 안쪽 면에 붙이고…」라는 구절이 나타나고 있다.³⁸⁾ 또한 《世宗實錄》 五禮儀 治裝條에는 석실 조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蓋石의 내면에 油煙墨으로써 天形·日月·星辰·銀河를 그리되, 모두 躔次에 의거하고 해는 朱色을 사용하고, 달과 星辰·銀河는 粉을 사용하여 이를 그린다.」라는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³⁹⁾ 고법리벽화묘가 세종 2년에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전자의 기사와 같이 석실 상부에 종이로 星宿圖를 그려 붙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채색하여 그려 넣은 것으로 만약 인멸되었다면 상기한 적외선 촬영결과에 나타난 흔적이 성숙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연 상태 이 띠와 같은 형태일 뿐 성숙도의 기본 구성과는 판이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다면 천정 상부의 星宿圖는 어떠한 형태일까? 이는 그림 7에 나타나는 안동 서삼동 벽화묘와 원주 동화리 벽화묘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⁴⁰⁾ 여기에는 천정에 모두 유연묵으로 星宿圖를 그린 것이며, 1456년(세

34) 문환석·조남철·황진수, 2002, <벽화 적외선촬영 및 안료재질분석 연구> 『밀양고법리벽화묘』 동아대학교 박물관

35) 李義仁, 2006, <京畿地域 高麗古墳의 構造와 特徵>, 『고려시대의 고고학』 2006년도 서울경기 고고학회 학술대회

36) 임세권, 1981, 『서삼동벽화고분』 안동대학 박물관

37) 國立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桐華里 盧懷慎壁畫墓 發掘調査報告書』

38) 《朝鮮王朝實錄》 世宗 2年 9月 16日 山陵制度 「…又用紙畫天象(日月星辰皆圖畫)付石室 蓋石內面…」

39) 《世宗實錄》 五禮, 凶禮 治葬條, 「乃於蓋石內面, 以墨 畫天形日月星辰銀河, 皆依躔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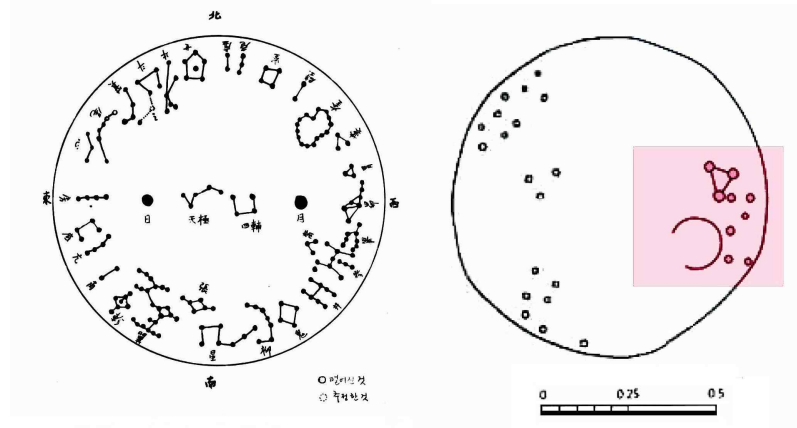


그림 7. 안동 서삼동벽화묘(좌)와 원주 동화리벽화묘(우)의 星宿圖

조 2년)에 조성된 원주 동화리 노회신묘의 경우 천정에 그려진 星宿圖는 《世宗實錄》 五禮 治裝條의 내용과 시기적으로도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奇巖怪石과 梅竹圖의 표현에 관한 점이다. 이러한 대나무와 매화를 그려 넣은 사례는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오직 고려 태조 왕건릉(943)과 정종릉 등 10세기 고려 초 고분의 벽화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⁴⁰⁾ 때문에 고법리벽화묘의 매죽도는 그 전통을 되살린 것으로 볼 수 있고, 태조 왕건릉에서는 松竹梅의 塞寒三友를 표현하면서 奇巖怪石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상징성에 있어서 일맥이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⁴²⁾ 그런데 밀양 고법리 벽화묘에서 나타나는 梅竹은 태조 왕건릉과는 시기적인 차이가 크고, 그 사이에 이를 계승할 수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사실 塞寒三友인 松竹梅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는 태조 왕건릉이 유일한 셈이지만, 고법리 벽화묘와 같이 奇巖怪石에 梅竹이 표현되고 있는 구상은 중국 내 다른 벽화묘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한 것이 그림 8이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 가장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벽화묘는 10세기 전반으로 판단되는 曲陽縣 五代(907-960)의 王處直 壁畫墓로 볼 수 있다.⁴³⁾ 이 무덤은 전실과 후실 및 耳室로 구성된 황혈식 전실분으로, 여기에는 각종 생활상을 비롯

40) 주30의 전거서

41) 김영심, <고려태조 왕건왕릉벽화에 대하여> 『조선예술』1993, 11

42) 安輝濬, <松隱 朴翊墓의 壁畫> 『密陽 古法里壁畫墓』東亞大學校 博物館

43) 李文龍, 2000, <曲陽五代王處直壁畫墓> 『河北古代墓葬壁畫』文物出版社

절도사를 지냈으며, 924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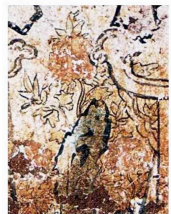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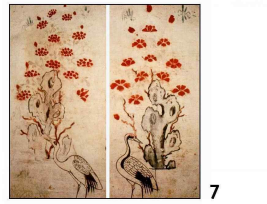



		牡丹	松竹梅	
遼代	10세기			1: 曲陽縣 五代 王處直墓 (10世紀 前半) 2: 赤峰市 2號 遼墓 (923)
	11세기			3: 登封市 北宋 古村 壁畫墓 (11世紀 末) 4: 高麗 太祖王陵
		 		5: 宣化 遼墓 張匡正墓 (1093) 6: 赤峰市 前進村 後期 遼墓
	12세기			7: 宣化 遼墓 張世古墓 (1117) 8: 登封縣 王上 金代墓 (13世紀 初)
金代	13세기 초			
元代	13세기 말		 고법리 벽화묘	9,10: 西安市 翰森寨 元代墓 (1288) 古法里 壁畫墓 (1420)

그림 8. 奇巖怪石과 梅竹圖의 전개

하여 牡丹을 중심으로 장미화 등의 花鳥畫가 병풍처럼 벽면에 장식되고 있으며, 그 상부에는 雲鶴畫, 천정에는 星宿圖가 그려져 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그림 8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바위에 솟아난 牡丹圖이며, 이 계통은 이후 11세기 말로 판단되는 北宋의 古村 壁畫墓⁴⁴⁾나 遼代의 張匡正 壁畫墓(109

⁴⁴⁾ 鄭州市文物考古研究所, 2005, <登封古村宋代壁畫墓>, 『鄭州宋金壁畫墓』科學出版社

3)⁴⁵⁾ 단계에 이르면서 花瓶에 꽃힌 牡丹畫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물론 이전 단계의 기암괴석과 새롭게 등장한 花瓶은 같은 공간에 서로 공존하는데, 12세기 초의 宣化市 張世古 壁畫墓(1117)⁴⁶⁾의 예와 같이 기암괴석에 그려진 牡丹畫에는 鶴도 같이 묘사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10세기 전반의 王處直 壁畫墓에서는 牡丹圖를 비롯한 생활상을 묘사한 벽화 상단에 구름과 같이 묘사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학이 차지하는 관념상이 위치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법리벽화묘와 관련되는 梅竹圖의 기원은 고려 태조 왕건릉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그림 8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보다 시기적으로 약간 앞서는 赤峰市 2號 遼墓⁴⁷⁾에서도 松竹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성이 예상된다. 물론 생활상을 주제로 묘사하면서 그 배경으로 사용된 것과 梅竹과 소나무를 분리하여 각각 주제로 묘사한 文人畫風의 塞寒三友와는 분위기가 상당한 차이가 느껴진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11세기 말의 宣化市 張匡正 墓에서는 梅竹이 학과 함께 등장하고 있으며, 赤峰市 前進村의 後期 遼墓⁴⁸⁾에서는 기암괴석과 함께 梅竹과 학이 나타나고 있다. 이 단계에 이르러 기본적 구성은 고법리벽화묘의 경우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잎이 무성한 것으로 보아 전죽이나 초릿대와 같은 잎이 무성한 관상용 대나무의 종류로 판단되며, 왕대 혹은 참죽을 그린 고려 태조 왕건릉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림 8-8에 나타나는 13세기 초엽의 登封縣 王上 金代墓⁴⁹⁾에서는 왕대 혹은 참죽이 등장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구성에서 점차 단순화되는 문인화풍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13세기 말 元代의 西安市 翰森寨 壁畫墓(1288)⁵⁰⁾에 이르러 대잎이 간략화하고 바위 뒤편에 앞만 살짝 나타나는 구도로 바뀌면서 이전까지 함께 묘사되던 학이 주제에서 사라진다.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15세기 전반에 조성된 밀양 고법리 벽화묘의 구도와도 상당히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한다면 奇巖怪石은 10세기 전반 五代墓에서 牡丹畫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遼代에 이르면서 11세기 경 고려 태조 왕건묘에

45) 河北省文物研究所, 2001, <張匡正墓(M10)>, 『宣化遼墓』文物出版社

46) 河北省文物研究所, 2001, <張世古墓(M5)>, 『宣化遼墓』文物出版社

47)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2009, 『內蒙古遼代壁畫』文物出版社

48)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2009, <赤峰市巴林左旗福山地鄉前進村遼墓壁畫>, 『內蒙古遼代壁畫』文物出版社

49) 鄭州市文物考古研究所, 3005, <金代壁畫墓, 磚雕墓>, 『鄭州宋金壁畫墓』

50)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4, 『西安翰森寨元代壁畫墓』, 文物出版社

나타나는 梅竹전통의 영향을 받으면서 牧丹畫와 함께 병존하면서 자체 변화를 거쳐 元代에 이르게 되었고, 밀양 고법리 벽화묘는 이 시기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셋째, 양쪽 장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지물을 든 인물군상들은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 《高麗史》 열전 한언공이나 徐熙 傳 등에 의하면 왕이 신하들의 부고를 전해 듣고 뇌원차나 대차 등을 내렸다는 기사가 종종 확인된다. 당시 차는 귀중한 예물이어서 왕이 신하와 백성들에게 그 공적에 따라 하사하기도 하였는데, 태조 왕건은 신라의 군민과 승려에게도 차를 하사하기도 하였으며, 成宗 9년(990)에는 5품 이상의 군민과 신하에게 차 10角⁵¹⁾, 9품 이상에게 차 5角, 품관 이상이 어머니와 처로서 나이 80 이상인 자들 중 3품 이상이면 차 2斤, 5품 이상이면 차 1斤, 9품 이상이면 차 2角을 각각 하사하기도 하였다.⁵²⁾

또한 穆宗 12年(1009)에는 민간인 남녀 80세 이상인 자와 큰 병에 걸린 사람 635명을 모아 차와 약 등을 하사하기도 하였고, 顯宗 때는 해군 무관과 전사한 군인들의 부모와 처자들에게도 차를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각각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신하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차를 하사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 『高麗史』 諸臣喪條에 따르면 고려 초 成宗은 崔知夢(987년卒), 崔承老, 崔亮의 賻儀에 200角에서 1000角에 이르는 많은 양의 腦原茶와 大茶를 하사한 바 있다.⁵³⁾ 그리고 同書 列傳에는 禮官侍郎 韓彥恭이 죽자 차 200角과 함께 예물들을 보내기도 하였으며,⁵⁴⁾ 穆宗 元年(998)에는 태보내사령 徐熙가 57세의 나이로 죽자 왕이 몹시 애도하며 역시 腦原茶 200角, 大茶 10斤을 비롯한 賻儀를 하사한 기록⁵⁵⁾ 등이 있다.

그리고 고려 후기부터 채택된 《朱子家禮》에 따르는 冠婚喪祭의 茶禮가 조선 개국과 함께 朱子學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크게 성행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⁵⁶⁾

- ① 冠禮로서 15~20세가 된 남자에게 관을 씌우는 의례인데, 主簿가 點茶하여 茶瓶을 들고 家廟의 신위 앞에 놓인 빈 잔에 차를 바쳤다.
- ② 婚禮로서 納采와 廟見 때 家廟에 아뢰는 茶禮가 집행되었다.
- ③ 喪禮로서 靈座에 차를 바쳤다.

⁵¹⁾ 고려차의 단위는 주로 角이었고 모양은 團茶(덩이차)로, 차뭇돌에 간 가루차였다.

⁵²⁾ 『高麗史』 第三卷, 世家第三卷, 成宗九年十月條

⁵³⁾ 『高麗史』 第六十四卷, 志 第十八卷, 禮六, 諸臣喪條

⁵⁴⁾ 『高麗史』 第九十三卷 列傳 第六 韓彥恭

⁵⁵⁾ 『高麗史』 第94卷 列傳 第七 徐熙

⁵⁶⁾ 《朱子家禮》

④ 祭禮로서 受煩과 辭神 사이에 主簿가 點茶하여 神位에 바쳤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茶飯事’ 라든지 ‘茶房’, ‘茶菓’, 그리고 제례용어로 흔히 사용하는 ‘茶禮’와 ‘獻茶’와 같은 용어는 모두 고려 시대에 주로 사용되었던 용어들임을 확인할 수 있고, 飲茶文化가 보편적 생활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중 벽화 내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 후 3년 안에 혼전과 陵所에 드리는 제사의식인 晝茶禮에 관한 기록이다. 《世宗實錄》을 비롯한 각종 문헌에서 확인되고 있는데⁵⁷⁾, 고법리 벽화의 持物 내용들은 대체로 야외에서 행해졌던 제례와 관련이 깊고, 장대와 서책, 모자,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말은 마치 멀리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 보다 앞선 시기에 해당하는 중국 遼代의 벽화묘와 비교할 수 있다. 遼의 수도였던 中國 河北省 張家口市 宣化區에 위치하는 宣化 下八里村에서 1973년부터 1993년 간 河北省 文物考古研究所에서 9기의 遼代 晚期 壁畫墓를 발굴한 바 있다.⁵⁸⁾ 발굴된 벽화묘는 모두 7기이며, 각각 墓誌石이 출토되어 墓主 이름, 본적지, 약력, 가정의 구성원, 종교신앙, 卒葬 연대 등이 평균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들 벽화들은 死者가 생전에 살았던 생활상을 벽면에 그리고 있는데, 그 중에는 밀양 고법리벽화묘와 유사한 雲文의 묘사나 두발 형태, 花飾冠, 교령과 단령의 복식, 장화와 가죽신, 신선초와 학, 각종 지물과 소도구들이 상호 깊은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⁵⁹⁾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내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들 중에서도 차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이다. 당시 차의 형태뿐만 아니라 각종 茶器들을 비롯하여 차 맷돌이나 화로 등 관련 내용들이 아주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기암괴석과 목단화들은 묘주의 생활공간 중 병풍과 같은 배경의 형태로 벽면에 그려져 있고, 주 내용은 散樂圖⁶⁰⁾와 함께 茶禮가 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57) 세종 때에는 세자가 英陵에서 晝茶禮를 행하였다는 기사가 세종 29년에 3회 나타나며, 그 이후에도 晝茶禮는 지속적으로 행해져 조선조 마지막인 고종과 순종 때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世宗實錄》 115卷 29年 1月19日, 3月9日, 윤4月28日 『世子詣英陵, 行晝茶禮』

58) 河北省文物考古研究所, 2001, 『宣化遼墓壁畫』 文物出版社

59) 沈奉謹, 2002, 『密陽古法里壁畫墓』 東亞大學校 博物館

60) 사자의 무덤에 각종 악기를 동원해 춤을 추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에서 시작되어, 漢代를 거쳐 삼국시대 고구려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隨書》 고구려전에는 죽은 사람의 관을 삼년동안 屋內에 안치하였다가 길일을 택해 장례를 치루는데 初終에 哭泣하다가 장례를 할 때는 鼓舞하고 음악을 연주하여 망자를 보냈다는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死者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移葬·初終哭泣 葬則鼓舞 作樂以送之'


	덩 이 차	화 로	차 잔	차 병
古法里壁畫墓				
宣化遼墓				

그림 9. 宣化 遼墓의 茶禮圖에 나타나는 持物과 古法里壁畫墓의 比較

그 중 그림 9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고법리벽화묘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비교해 보았다. 당시 고려와는 전쟁을 통해 가장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도 문화적인 접촉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密陽 古法里 壁畫墓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앞서 문헌적으로 살펴본 내용들과 유물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국의 벽화고분에 묘사된 차와 관련된 벽화들을 감안할 때 麗末鮮初의 喪禮에 참여하여 茶禮를 베풀기 위한 모습을 敘事的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고법리벽화묘의 목관에서는 많은 수의 梵字文이 확인되었다. 목관은 대부분 부식되고 그 위에 남은 흑철에 겨우 글씨가 남아 있었는데, 그림 10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宣化 遼墓에서는 목관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음·마·니·반·메·흠이라는 《六字大明陀羅尼》를 비롯한 20여건의 다라니경이 쓰여진 채 발굴되어 장법상 관련성이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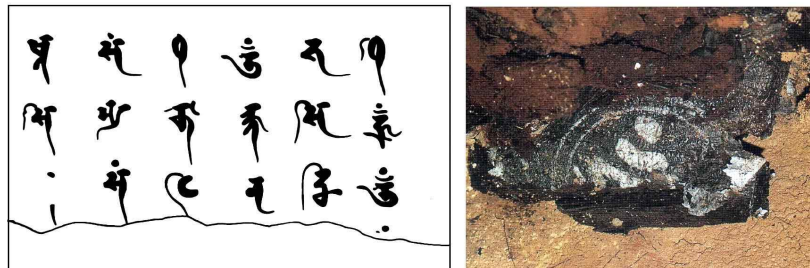


그림 10. 宣化市 遼墓 張世古墓(1117: 좌)와 古法里壁畫墓(우)의 木棺에 그려진 梵字文



그림 11. 中國 遼代의 韓師訓墓(1111) 出行圖에 나타나는 壁畫

넷째, 마지막으로 남쪽 단 벽에 나타나는 말과 마부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과 함께 宣化 遼代墓에서는 그림 11에 나타나는 韓師訓墓(1111年)에서도 말과 마부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으며, 前室 西壁에 묘사된 出行圖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⁶¹⁾ 중국 내에서는 이러한 그림이 벽화묘에서 종종 확인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고려 조선시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확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닌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러한 圖式의 시작은 그림 12-1에 나타나는 漢代 묘지 祠堂의 畫像石이며, 5세기 초 고구려 덕흥리 벽화고분(408)⁶²⁾을 비롯하여 중국 元代에 이르기까지 확인되고 있다. 우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漢 高祖가 전국시대의 諸子百家 중 儒敎를 國治로 취한 후, 한 무제 때에 국력과 경제가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전형적인 농업사회인 중국의 고대는 喪葬儀禮를 극히 중시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화상석이 새겨진 祠廟와 함께 벽화분이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고조 유방부터 景帝 때까지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 것은 노자의 무위사상이었지만, 무제 즉위 후 노자를 배척하고 董仲舒와 公孫弘을 필두로 한 儒學者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중국 역사상 지배적인 사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유교에서 다루지 못한 死後의 내세 관념은 도교가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이들은 서로 병존해왔다고 할 수 있다. 유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忠孝이고 죽은 조상, 특히 부모에 대한 厚葬은 가장 중요한 효행의 실천이었다. 《左傳》에 의하면 「돌아가신 분을 살아 계신 분을 섬기는 것과 같이하는 것이 禮이다」⁶³⁾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鬼猶口食」⁶⁴⁾이라 하여 사람이 죽은 후의 영혼은 생전과 같은 모습으로 기거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으로⁶⁵⁾ 보인다.

61) 寧夏回族自治區固原博物館, 1999, 『原州古墓集成』 文物出版社

62) 주영현, <주요 고구려벽화무덤의 주인공에 대하여> 『고구려벽화고분』

63) 《左傳》 哀公十五年

64) 《左傳》 宣公四年

65) 信立祥(김용성 역), 2005, 『한대 화상석의 세계』 학연문화사

이러한 예제상의 근거가 유교를 바탕으로 한 제사의례와 祠廟 및 벽화묘의 기원이 되었고, 여기에 덧붙여 도교의 신선사상이 사후 관념으로 가미되면서 동아시아 역사상 각국 묘제와 사후 사상의 바탕을 이루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면 12-1에 나타나는 것은 중국 산둥성 가상현의 소사당 후벽에 새겨진 後漢代 화상의 일부인데, 같은 가상현의 武氏祠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도상이 왜 등장하여 元代나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 의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그림 내용을 살펴보면 나무 아래에 말 1필과 남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활을 들고 나무에 앉은 새를 향해 바라보고 있고⁶⁶⁾, 그 오른쪽에는 雙闕樓層 建物이 위치하고 있다. 건물 내에는 뒤에 시종을 거느린 사람이 가운데 앉아있고 세 명으로부터 배례를 받고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은 건물 밖에 위치하고 있어 신분차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12-2의 덕흥리 고구려 벽화고분은 석실 후실 제단의 가운데에 주인공의 좌장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묘주의 가정생활 모습을 중심으로 가족들과 친지들이 배례하는 내용과 함께 하단부에 1필이 말과 마부가 대기하고 있다. 전설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배례받는 동일한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실과 후실 사이의 복도 양쪽 벽면에도 1필의 말과 마부, 시종이 각각 배치되고 그 상부에는 행열도가 그려져 있어 이동 공간마다 각각 별도의 말들을 그렸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2-3은 7세기말의 寧夏縣 固原市에 위치하는 7세기 말의 唐代 화묘로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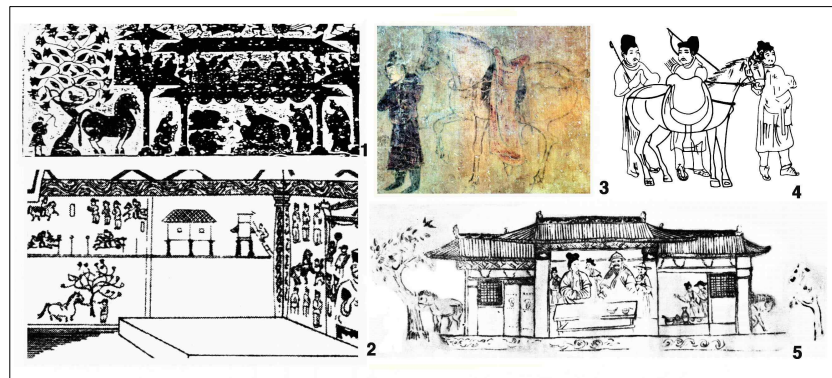


그림 12. 1: 山東省 嘉祥縣 松山 4號(後漢代), 2: 德興里壁畫墓(408), 3: 固原市 南郊鄉 羊坊村 梁元珍墓(699), 4: 鄭州 登封 古村 宋代墓(11세기말-12세기 초), 5: 昭盟 元代 壁畫墓

⁶⁶⁾ 이러한 도상을 車馬停放圖라고 하는데, 漢代의 화상석에는 대부분 말과 마차가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⁶⁷⁾ 寧夏回族自治區 固原博物館, 1999, 『原州古墓集成』文物出版社

매우 독특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벽면에는 모두 기립해 있는 인물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3명의 늙은이가 잎이 없는 나무 아래에 각각 서있고, 이와 함께 젊은 남녀 한쌍, 그리고 부채를 든 시녀 1인 등 모두 6명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말의 고삐를 잡고 대기하고 있는 마부가 말 역시도 6개가 각각 벽면에 그려져 있어 말과 사람은 1:1 구도로 대치되고 있다. 아마 생전에 묘주와 가장 관련이 깊었던 사람들 일 것이다.

12-4는 登封市 告成鎮 古村에 위치하는 宋代墓⁶⁸⁾로 돛천정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11세기 말~12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벽화는 상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천정인 최상부에는 8각형으로 이루어져 구름 위에 서 있는 남녀 선인 8명이 각각 그려져 있고, 그 아래 주심포 사이 공간에 효자 효부의 事例圖가,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방 벽면을 8칸으로 나누어 묘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차와 음식을 접대하는 宴飲圖가 그려져 있다. 말과 마부는 묘실 입구의 오른쪽에 그려져 있고 맞은 편에는 음식을 장만하는 庖廚圖가 그려져 있다.

12-5는 內蒙古 昭烏達盟(現 赤峰市) 三眼井村에 위치하는 元代의 소형 벽화묘이며 2기(M1, M2)가 위치하고 있다.⁶⁹⁾ 묘실은 M1는 장방형이고, M2는 정방형인데 이 중 M1은 일찍 도굴되어 파괴가 심한 편이다. 이 중 양호한 M2의 내용을 보면, 부부 합장묘이며, 묘벽 높이는 1m로 고법리 벽화묘와 규모가 유사하다. 벽화는 원대 귀족의 일상생활 위주로 되어 있고, 기법은 백묘법으로 검은 먹으로 선을 그어 그렸고, 간혹 주홍색이나 푸른색으로 단장하였다. 내용은 도면에 나타나는 宴飲圖를 비롯하여 出獵圖, 出獵歸來圖의 3폭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정에는 四神圖가 그려져 있는데, 원주 동화리 벽화묘의 경우와 같이 조잡하다. 입구에는 도끼를 든 신장상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는 말이 건물 양쪽에 각각 1필씩 그려져 있어 고법리 벽화묘와 같이 2마리가 된다. 그러나 마부는 보이지 않고 옆에는 나무가 있어 漢代 화상석이나 덕흥리벽화의 묘사와 가까운 느낌을 주고 있다.

우선 漢代에 나타나는 도상의 내용에 대하여 信立祥은 여러 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비교적 명쾌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⁷⁰⁾ 그에 의하면 「이 그림은 漢代 畫像石의 도상 배치 규율에 근거하면 車馬出行圖가 사당 벽면 최하층에 배치되어 祠主 부부가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한 지하세계로부터 祠廟로 오는 것을

68) 鄭州市文物考古研究所, 2005, <登封古村宋代壁畫墓>, 『鄭州宋代壁畫墓』科學出版社

69) 項春松·王建國, 1982, <內蒙古昭盟赤峰三眼井元代壁畫墓>, 『文物』

70) 信立祥(김용성 역), 2005, 『한대 화상석의 세계』학연문화사

나타내며²⁷⁾, 나무 아래 말이 묶여 있는 車馬停放圖와 음식을 조리하는 장면의 庖廚圖는 사주 부부가 누각 쌍궐로 도달한 후의 모습을 표현한 것, 그리고 쌍궐 건물 내의 祠主受祭圖는 사주 부부가 지손의 祭拜를 받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그 가운데 사주수제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다른 내용의 화상들은 그것과 관련된 것이기에 선택되었고 배치되었다.²⁸⁾라고 하였다.

즉 말과 마부 그림의 도상학적 의미는 묘주가 지하 귀혼세계에서 후손들의 제사를 받으러 와서 이미 도착한 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묘실 벽화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 진다.

즉 묘실이 死者의 시신이 직접 안치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벽화 내용은 묘실 밖의 祠廟와 같이 묘주가 죽어 지하 귀혼세계로 간 이후 후손들의 준비한 제사를 받기 위하여 마부가 끄는 말을 타고 이곳에 도달한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된다. 따라서 묘실 벽화에 나타나고 있는 주 내용은 漢代 화상석의 경우와 다름없이 묘주가 후손들에게 제사를 받는 墓主受祭圖가 중심을 이루고, 묘주는 중심에 배례받는 형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제사의 기본적 내용은 庖廚圖, 宴飲圖, 樂舞圖와 같은 예제규정에 따른 생활도이지만, 受祭圖의 내용은 각 시대와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宋代 이후의 宴飲圖에는 차를 바치는 茶禮圖가 주제로 많이 등장하고, 이후 遼代와 元代, 그리고 조선의 고법리 벽화묘에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법리 벽화묘의 내용은 茶禮를 중심으로 하는 墓主受祭圖의 내용을 묘사한 것이 명확해지고, 아울러 멸실된 북쪽 단벽에는 묘주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야 할 사안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화상석이나 벽화는 묘주와 말이 1:1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원대 12-5의 元代 벽화묘에서도 2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무덤이 부부합장묘이고, 벽화 내용에도 주인공 부부가 受祭圖의 대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1:1 대응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고법리 벽화묘의 경우에 나타나는 2필의 말과 마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고법리 벽화묘의 묘주인 박익의 장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기록 2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는 그의 문집에 실려있는 황희가 쓴 박익이 表文인데, 여기서는 1398년(정종 즉위년) 사망하였으며²⁹⁾

²⁷⁾ 12-1의 하단부에 있는 것으로 이 도면에서는 나무 아래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찢려 있음.
²⁸⁾ 『松隱先生文集』 권 2, 墓表 「淸道郡 西面 素古野 良坐原에 舍封한 무덤은 前朝 忠臣 예부시랑 겸 중서령 松隱朴公 諱天翊과 貞敬夫人 星山裴氏 賢輔의 딸을 장사지낸 곳이다.」

부인 星山裴氏 賢輔의 딸과 합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발굴과 정에서 확인된 墓誌石인데, 여기에는 1402년(세종 2년)에 장례를 치렀다고 되어 있으며⁷³⁾, 조사결과도 합봉이 아니라 단곽분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김광철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⁷⁴⁾ 1) 발굴된 墓誌石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박익의 나이가 89세가 되어 당시 수명을 고려한다면 수궁하기 어렵다. 2) 때문에 황희의 墓表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종 1년(1398)에 사망하였으며, 묘는 부인 성주배씨와 습封으로 조성되었을 것이다. 3) 태종대 이후 고려조에 절의를 지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중견 관직에서 활동하고 있던 아들 박용이 1420년(세종 2)에 아버지 박익의 무덤을 새롭게 단장 혹은 改葬하였으며, 4) 발굴된 묘지석은 이 때 만들어 奉安했을 가능성을 제기 하였다. 단곽분으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박익의 처는 3명이며, 장남인 박용은 星山裴氏의 소생이 아니라 둘째 부인인 창원박씨의 소생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내용을 보완하여 재구성하면 박익선생의 본처인 성주 배씨는 자손을 낳지 못하고 가장 먼저 사망하였으며, 후에 박익선생이 사망하면서 본처와 합봉을 하였지만, 유교를 국치로 삼은 조선은 고려조에 절의를 지켰던 세력들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장남인 박용이 태종조에 관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세종 2년에 현재의 벽화묘가 새롭게 조성되었고, 발굴된 墓誌石도 이때 만들어



그림 13. 단벽의 견마도(좌)와 장벽 벽화(우)의 바탕 비교

73) 「朝奉大夫 司宰少監 朴翊墓 長子融 二子昭 三子昕 四子聰 長女適孫奕 二女適曹 功顯三女適孫億 永樂庚子二月甲寅葬」

74) 김광철, <여말선초 사회변동과 박익의 생애>, 『密陽古法里壁畫墓』 동아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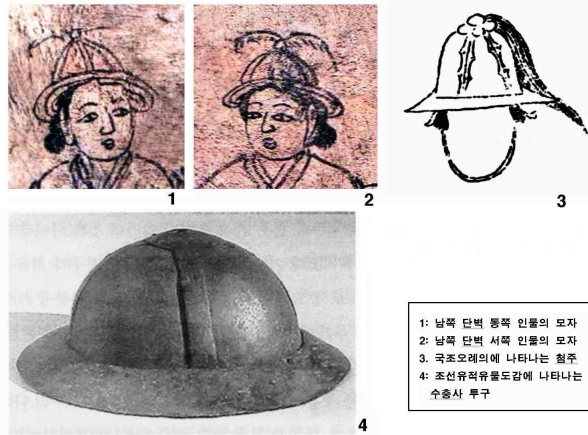


그림 14. 남쪽 단벽의鉢笠과 조선시대의簷靑

매납한 것으로 된다.

이 과정을 통하면 2마리의 말과 마부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하다. 우선 그림 4에 나타나고 있는 박익묘의 도면을 관찰하면 묘광 내에는 한사람이 더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오른 쪽에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을 채워서 단곽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남쪽 단벽의牽馬圖는 다른 벽화와는 차이가 뚜렷하다. 그림 1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림 수법은 동일 화가에 의하여 그려졌기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담홍색이 채색이나 벽화의 바탕은 차이가 크다. 행열도를 그린 장벽의 벽화들은 바탕의 백토(회반죽)가 비교적 두껍고 표면이 매우 고른 편이다. 그 바탕에 묵선을 알게 그린 후 채색하였기 때문에 보기에는 매우 선명하지만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떨어져 나가는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발굴 당시 양쪽 장벽 아래에는 많은 벽화편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그런데 말과 마부가 그려져 있는 단벽은 바탕이 매우 거칠고 백토의 두께도 고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칠게 솔질한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바탕에 먹선으로 그린 것이다. 즉 백토의 양이 적은 바탕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선명도는 떨어지지만 절반 이상이 흙에 덮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양호한 보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2마리의 말과 마부는 부부합장묘가 조성될 초기에 그려졌던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벽화 내용은 세종 2년 改葬시기에 그려졌던 내용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타당하다면, 맞은 편 북쪽 단벽의 주인공이 있었을 곳에는 그림 12-5에 나타나는 원대 벽화묘의 경우와 같이 주인공 부부가 그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곳은 도굴군에 의해 훼손된 것이 아니라 1402년 새롭게 조성할

당시에 이미 이곳의 그림은 없어져버렸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IV. 문헌 검토와 벽화묘의 성격

앞 장에서 고법리 벽화묘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벽화 내용의 특징과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검토하였던 바와 같이 이 묘는 여말선초의 왕실과 귀족층에서 행해졌던 장례와 묘제에 대한 내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고분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벽화묘의 구성과 관련하여 동시기에 해당하는 문헌을 통하여 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와 관련된 문헌자료는 2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세종 2년 9월 16일조에 나타나는 《山陵制度》에 관한 기사이고⁷⁵⁾, 다른 하나는 세종 실록에 부록으로 실려있는 《世宗 五禮儀》이다. 세종은 정척과 변효문에게 명하여 五禮儀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이를 보지 못하고 승하하였기 때문에 왕의 考定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세종실록에 실리지 않았고, 대신 태종 15년(1415)에 허조가 만든 원칙에 따라 세종 초에 정리되었던 여러 제사 의주가 수록된 것이 세종 五禮儀이다.⁷⁶⁾ 이 중 묘제와 관련된 내용은 凶禮條에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왕릉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때문에 일반 귀족층의 장례 내용과는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제의 변화에 근거하여 귀족들의 무덤 역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이 둘의 내용 전개 순서에 따라 <표1>을 작성하였고, <표2>는 그 내용의 개요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불과 5년의 차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많다. <표1>을 보면 墓壙 조성 이전 기록의 豫備 단계가 《山陵制度》에서는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재료의 준비 단계가 새로 나타나고 있고, <표2>에 있어서도 편방의 설치나 羨道の 설치와 같이 변화가 없는 부분은 재언급하지 않고 있다. <표2>를 보면 병풍석과 바깥 장식과 같이 《五禮儀》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개선되어진 부분을 《山陵制度》에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종 2년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구성을 보이고

⁷⁵⁾ 《世宗實錄》 2年 9月 16日 山陵制度

⁷⁶⁾ 池斗煥, 1985, <國朝五禮儀 編纂過程(1)> 『釜山史學』9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순서상에 큰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왕의 시신이 든 재궁(관)의 매납에 있어서 세종 《五禮儀》에서는 필자가 분류한 총 16개의 단위 중 8번째로 벽화 조성 후 석실에 매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山陵制度》의 경우에는 12번째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지석의 매납 직전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묘지석의 매납도 전자는 봉분 조성 후에 매납하지만, 후자는 장례의 마지막 단계에 매납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보완적인 성격과 함께 세종조에 상당 부분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세종 2년에 나타나게 된 이유는 태종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제도와 예법이 현실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확인되면서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실록에 게재되었다고 판단된다. 이후 정적과 변효문에게 명하여 五禮儀 편찬을 지시하였지만 결국 완성을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세종 《五禮儀》와 세종 2년 《山陵制度》의 내용 순서 비교

		世宗 五禮儀(태종 15년: 1415)		세종 2년 山陵制度 (1420년)	
1	豫 備	기간과 위치선정	준비	석실의 用材와 규격	1
2		묘역의 조성		석실 상부시설의 用材 수와 문양 및 규격	2
3		후토(后土)에 제사		봉분 밖의 부속시설물의 수와 규격	3
4	玄 室	묘광의 조성	시행 방법	3단 묘역의 구조와 규격	4
5		석실의 조성		석실조성 방법	5
6		석실 상부의 조성		석실 천정에 천문도 부착과 상부시설 조성방법	6
7		석실 내부의 벽화 조성			
8	석실 내부에 관을 안치	봉분 바깥 담장과 내부 석물의 배치 방법	7		
9	석실 전면에 편방의 설치				
10	봉분 시설	병풍석과 봉토조성	기타	3단 묘역과 시설물의 배치방법	8
11		봉분 바깥 시설물 조성			
12		봉분 바깥 담장(曲牆) 조성			
13		석호와 석양 배치		정자각과 燒錢臺石	9
14	지석	지석의 매납		재실의 건립	10
15	기타	석상과 망주석, 문인석과 석마, 무인석배치	지석	재궁(관)의 안치와 봉분의 마감방법	11
16		정자각, 예감, 비각, 고방의 설치			

이런 점에서 《國朝五禮儀》가 완성되는 성종조까지는 상당한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조선 초기 벽화묘의 성격이 다양성과 함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2>에 나타나는 내용상의 큰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世宗 五禮儀》가 1릉 2실인데 반하여 《山陵制度》에서는 1릉 1실로 나타나고 있다. 1릉 2실은 부부합장묘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운데를 터서 창을 만들어 사후에도 합쳐질 것을 염원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漢代에 塋室墓가 등장한 이래로 원대에 이르기까지 室의 개념은 夫婦合葬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초기 이러한 제도는 채용은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림 4에 나타나는 거창 둔마리 벽화묘⁷⁷⁾의 경우, 고려시대의 유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五禮儀》의 기록과 아주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 초기의 전형적인 구조라 판단된다. 편방이 나타나는 점, 개석 상부의 개석의 특징과 부가개석, 그리고 그림 4에 같이 제시되어 있는 원주 동화리벽화묘(1456)와 비교하더라도 더욱 명확해진다.

표 2. 世宗 《五禮儀》와 세종 2년 《山陵制度》의 내용 비교

	世宗 五禮儀(태종 15년 내용: 1415)	세종 2년 산릉제도 (1420년)
陵室	1릉 2실	1릉 1실(너비 8척, 높이 7척, 길이 11척)
개석	양쪽 석실에 개석 각각 1(2), 개석 덮개돌 1	개석(너비 각각 8척) 2, 개석 덮개돌 1
격석	양 석실 사이에 창을 만들고 소나무 황장판으로 막아둔다.	
벽화	개석 내면에 유연묵으로 天形, 日月, 星辰, 銀河를 그리고, 천상이 바깥과 사면에 모두 분으로 바탕을 삼아 사신도를 그리되, 四獸의 줄머리는 격석 창 아래를 따라서 그린다.	일월성신의 천문도를 종이에 그린 후 석실 개석 안쪽면에 붙인다.
문의석		문쩍돌(門扉石) 앞에 門倚石을 세운다.
편방	문의석 앞에 돌로 편방을 만들고 三合土와 숯가루를 쌓아 올린다.	
연도	남쪽면을 터서 羨道를 만든다.	
병풍석과 바깥 장식	초지대석 24개, 그 위에 정지대석 12개, 우석 12개를 정지대석 위에 두고 만석 12개를 우석과 면석 위에 둔 후, 인석 12개를 만석 위의 판곳에 가한다.	12개의 바깥 지대석 : 覆蓮을 새긴다. 12개의 地面石: 아래 靈芝, 위 12지신, 좌우로 雲文을 새긴다. 12개의 隅石은 모양이 磬石과 같고 아래에는 靈芝를 새기고 위에는 왼쪽에 靈杵를, 오른쪽에는 木杵를 새긴다. 12개의 滿石에는 仰蓮을 새긴다. 12개의 引石의 바깥 끝에는 木단과 지초화와 國화를 돌아가며 새긴다.

77) 文化財管理局, 1974, 『居昌屯馬里 壁畫古墳 發掘調査 報告』

	世宗 五禮儀(태종 15년 내용: 1415)	세종 2년 산릉제도 (1420년)
지석	석실 남쪽 7척 좁게 깊이 5척을 파서 삼합토로 쌓아 올려 두께가 1척 5푼으로 한다. 油灰로 지석 4면을 약간 발라 개석을 덮은 후, 다시 함봉한 틈에 바르고 銅鐵繩으로 묶은 후 묻고 삼합토로 1척 5푼 두께로 메운 후 흙을 덮는다.	능 남쪽, 상석 북쪽에 땅을 파고 지석 2쪽을 묻는데 길이가 각 3척 3촌, 너비 3척 두께 3촌이며 그 하나는 두껍고 지문을 새겼다.
垣牆	地臺石과 隅石밖의 공지에 빙 둘러 너비 3척, 깊이 2척가량을 파서 삼합토를 단단히 쌓아 올리고 동쪽 서쪽 북쪽 3면에 담장을 두르는데 높이 3척 4촌이다.	차면 지대배석 12과 우석 12은 돌난간 밖에서 서로 사이하여 배치하고 동서북 삼면에 각각 뜰 한층을 만들고 담으로 두른다.
묘역	1단	남쪽 가운데 석상 1개를 두고 양쪽에 망주석 각 1,(상거 37척) 망주석 서쪽에 燒錢臺石 석양 4, 석호 4(각 동쪽 2, 서쪽2) 석호는 남쪽, 석양은 북쪽
	2단	가운데 長明燈을 두고 그 좌우에 文人石과 石馬 각각 1개씩 세워 마주보게 한다.
	3단	좌우에 무인석과 石馬 각각 1개씩 세워 마주보게 한다.
		중간 북쪽 가까이에 長明燈을 설치하고 좌우에 문인석 각각 1개, 석마 각각 1
		좌우에 무인석 각 1, 석마 각1, 중앙에 배석 1

이 중 고법리벽화묘는 1420년의 묘지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세종 2년 이 모두 적용되는 시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개석 2개를 덮는데 그 두 조각 돌이 이어지는 곳은 油灰로 메우고, 또 개석 한 조각을 더 그 위에 덮는다.⁷⁹⁾
- ② 종이로 일월성신의 天文을 그려서 석실의 개석 안쪽 면에 붙이고...⁷⁹⁾
- ③ 남쪽면을 터서 羨道를 만든다.⁸⁰⁾
- ④ 능 남쪽 상석 북쪽에 땅을 파고 묘지석 2쪽을 묻는데, 길이가 각 3척 3촌, 너비 3척, 두께 3촌이며, 그 하나는 두껍고 지문을 새겼다.⁸¹⁾
- ⑤ 재궁(관)을 석실에 봉안하고 난 뒤에, 문짝 돌 두 개로 그 문을 막고,

79) 《世宗實錄》 2年9月16日 山陵制度 '次加蓋石二片, 其二片連合處, 以油灰彌之, 又加置蓋石一片於其上,'

79) 《世宗實錄》 2年9月16日 山陵制度 「又用紙畫天象(日月星辰皆圖畫) 付石室 蓋石內面…」

80) 《世宗實錄》, 五禮儀 凶禮 治葬條 '…開南面以爲羨道」

81) 《世宗實錄》 2年9月16日 山陵制度 「又於陵南近地(即石床之北)掘地用誌石二片,(石出江原道旌善郡)長各三尺三寸、廣各三尺、厚各三寸, 其一爲蓋, 刻誌文」

문에 붙여서 門倚石 하나를 세운 후 기름회로 그 틈을 발라 매운다.⁸²⁾

⑥ 그 지대석과 우석 밖의 공지에 빙 둘러 너비 3척, 깊이 2척 가량을 파서 <石灰·細沙·黃土> 세 가지 물질을 단단히 쌓아 올리고, 동쪽·서쪽·북쪽의 3면에 垣牆으로써 두르는데, 높이가 3척 4촌이다.⁸³⁾

⑦ 남면하여 세 뜰이 있는데, 위의 뜰은 높이가 1척이요, 남북은 너비가 14척이요, 동서는 길이가 55척 5촌이다. 가운데 뜰은 너비가 21척이며, 높이와 길이는 윗 뜰과 같고, 아래 뜰은 너비가 27척, 높이가 2척 7촌이요, 길이는 윗 뜰과 같다. 남쪽을 당하여 동서 쪽에 각각 작은 돌층계가 있다.⁸⁴⁾

①을 통하여 조선 초기의 개석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림 4의 경우 하단부에 있는 것들은 모두 동일한 개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②는 고법리벽화묘의 천정석에 벽화가 없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③은 제2장에서도 검토했던 바와 같이 고법리벽화묘에 나타나는 연도의 특징이 조선 초기단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④는 鐵繩으로 묶여진 誌石의 특징을 보여주며, ⑥은 고려시대 角牆에서 조선 초기에 曲牆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고, ⑦은 왕릉의 묘역 구성이 3단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 귀족묘의 경우는 무인상을 지닐 수 없으므로 2단 구성이 기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성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그림 15의 花紋石에 대하여 주목할 수 있다. 밀양 고법리벽화묘의 조사과정에서 도굴꾼에 의하여 밖으로 노출된 것인데, 한쪽 면은 어디엔가 의탁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지 비워져 있고, 나머지 3면에는 蓮의 생성(잎)과 開花, 그리고 卍字문양과 함께 결실(연밥)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내용상으로 본다면 生老病死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며, 목관에 그려진 범자로 된 다라니경과 함께 불교적 요소로 볼 수 있다.

82) 《世宗實錄》 2年9月16日 山陵制度 「至奉粹宮安於石室訖, 以門扉石二, 塞其門, 加門倚石一於扉石之外, 以油灰塗其縫」

83) 《世宗實錄》, 五禮儀 凶禮 治葬條 「…其地臺石隅石外空地, 周回掘取廣三尺 深二尺許, 堅築三物 東西北三面, 以垣牆, 高三尺四寸」

84) 《世宗實錄》 2年9月16日 山陵制度 「面三階 上階高一尺 南北廣十四尺 東西長五十五尺五寸, 中階廣二十一尺 高及長與上階同 下階廣二十七尺 高二尺七寸, 長與上階同, 當南東西, 各有小石梯」



그림 15. 고법리 출토 화문석

<표2>에 나타나는 《世宗 五禮儀》와 세종 2년 《山陵制度》 기사는 목관을 안치하기 이전까지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는 假門扉石에 대한 내용과 함께 「門倚石 앞에 편방을 만든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⁸⁵⁾, 후자에는 「남쪽 입구는 비워 둔다」고 기술하면서 준비물 내용에는 門倚石이 나타나고 있다⁸⁶⁾. 이를 구성하면, 門倚石은 門扉石을 바깥에서 받치는 입구부의 돌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법리 벽화묘의 경우에 남벽 앞에는 개석이 돌출하면서 편방이 조성되어 있는데, 화문석의 구조나 내부 출토 정황상으로도 편방이 있는 문입구 밖에 놓여 있을 곳이 없다. 때문에 이 화문석은 문헌에 나타나는 門倚石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와 동일한 성격의 자료들이 다수 출토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벽화에 나타나는 구조와 내용들은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과 상당부분 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벽화의 내용 역시도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晝茶禮와 같은 제례행위의 묘사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당시 유교와 도교라는 기본 구도에서 고법리벽화묘의 경우는 사후 관념상 기존의 四神圖와 十二支神像이라는 도교적 요소 보다는 불교적인 요소를 채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85) 《世宗實錄》, 五禮儀 凶禮 治葬條 「…其倚石之外 以石作便房」

86) 《世宗實錄》 2년9月16日 山陵制度 「門倚石一 高七尺 廣七尺 厚二尺」

V. 맺음말

과거 고려시대 묘제에 간혹 벽화의 발견이 주목을 끈 바 있지만 고법리벽화 묘는 조선시대 묘제에도 벽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묘주인 松隱 朴翊선생이 고려 말에 활동하다. 조선초기인 1420년(세종2년)에 이 묘지를 조성하였다는 사실이 발굴된 誌石을 통하여 확인되었기 때문에 조선초기의 장법과 묘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원주 노회신묘에서도 벽화가 확인되면서 삼국시대 고구려로부터 시작되었던 벽화분의 전통이 조선시대 전기의 어느 시점까지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고려 및 조선시대 묘에 대한 조사 자료의 증가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과도기에 해당하는 麗末鮮初의 성격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점에서 이 고분의 묘제와 내용이 차지하는 고고학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고분의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비록 보고서에서 묘주의 생애와 벽화 및 복식, 그리고 출토 유물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었지만 미처 다루지 못하였거나 의문이 남았던 부분과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세종 오례의》와 《세종실록》 2년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조선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귀족묘의 특징의 한 단면을 확인한 것이다. 왕릉 조성에서 3단 묘역 구성이 《世宗 五禮儀》나 세종 2년의 《山陵制度》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귀족묘의 경우에는 무인상을 수반할 수 없기 때문에 2단 구성의 묘역을 기본으로 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파주 서곡리의 경우와 같이 여러 단으로 구성된 묘역은 지형에 따른 것일 뿐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隨道를 포함한 유구의 특징과 함께, 이 고분에 星宿圖가 확인되지 않았던 이유를 규명할 수 있었다.

독특한 구성을 보여준 벽화 내용에 있어서는 중국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墓主受祭圖의 구성이며, 宋代 이래로 다례가 중요한 벽화의 주제로 등장하면서, 이를 계승한 元代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朝鮮王朝實錄》의 기사에 나타나는 晝茶禮는 3년상 중에 혼전과 능소에서 행하는 제사의식으로 전술한 내용을 수용한 조선 초기의 내용이 고법리

벽화묘에 적용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격에 대하여 의문에 쌓여 있었던 花紋石의 성격에 대한 추론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내용들이 조선 초기 단계의 한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투고일 2011년 1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1년 2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1년 3월 2일 ■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左傳》

《朱子家禮》

고유섭, 1946, 『송도고적』 박문출판사

國立文化財研究所, 2007, <嘉陵>, 『江華 高麗王陵』

國立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桐華里 盧懷愼壁畫墓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桐華里 盧懷愼壁畫墓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文化財研究所, 『江華碩陵』, 2003

김광철, 2002, <여말선초 사회변동과 박익의 생애>, 『密陽古法里壁畫墓』 동아대학교 박물관

김영심, 1993, 「고려태조 왕건왕릉벽화에 대하여」 『조선예술』,

김원룡, 1974, 『한국의 고분』 교양국사총서 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김원룡, 안휘준, 2000, 『한국미술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인철, 2003,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김종혁, 1986, <개성일대의 고려왕릉발굴보고(1)>, 『조선고고연구』 86-1

김종혁, 1986, <개성일대의 고려왕릉발굴보고(2)>, 『조선고고연구』 86-2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2009, <赤峰市巴林左旗福山地鄉前進村遼墓壁畫>, 『內蒙古遼代壁畫』文物出版社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2009, 『內蒙古遼代壁畫』文物出版社

寧夏回族自治區 固原博物館, 1999, 『原州古墓集成』文物出版社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坡州 瑞谷里 高麗壁畫墓』

文化財管理局, 1974, 『居昌屯馬里 壁畫古墳 發掘調査 報告』

文化財管理局, 1973, 『武寧王陵 發掘調査報告書』

문환석·조남철·황진수, 2002, <벽화 적외선촬영 및 안료재질분석 연구> 『밀양고법리벽화묘』 동아대학교 박물관,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4, 『西安翰森寨元代壁畫墓』, 文物出版社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成周鐸·車勇杰, 1984, 『保寧 保寧里 百濟古墳 發掘調査 報告書』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信立祥(김용성 역), 2005, 『한대 화상석의 세계』 학연문화사
- 沈奉謹, 2002, 『密陽古法里壁畫墓』 東亞大學校 博物館
- 安輝濬, 2002, <松隱 朴翊墓의 壁畫> 『密陽 古法里壁畫墓』 東亞大學校 博物館
- 안희준, 2000, 『한국 회화사 연구』, 시공사
- 안희준, 2000, 『한국 회화의 이해』, 시공사
- 왕성수, 1990-2, <개성일대 고려왕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윤장섭, 1975, <한국의 영조척도> 『대한건축학회지』19-63
- 李文龍, 2000, <曲陽五代王處直壁畫墓> 『河北古代墓葬壁畫』文物出版社
- 李貞善, 2008, 『조선 전기 왕릉 石人·石獸 研究』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년도 석사학위논문
- 李弘植, 1954, <高麗 壁畫古墳 調査記> 『韓國文化叢書』14
- 李義仁, 2006, <京畿地域 高麗古墳의 構造와 特徵> 『고려시대의 고고학』 2006년도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대회
- 임세권, 1981, 『서삼동벽화고분』 안동대학 박물관
- 鄭州市文物考古研究所, 2005, <登封古村宋代壁畫墓>, 『鄭州宋金壁畫墓』科學出版社
- 鄭州市文物考古研究所, 2005, <金代壁畫墓, 磚雕墓>, 『鄭州宋金壁畫墓』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IV, 서울대학교 출판부
- 주영현, <주요 고구려벽화무덤의 주인공에 대하여> 『고구려벽화고분』
- 池斗煥, 1985, <國朝五禮儀 編纂過程(1)> 『釜山史學』9
- 河北省文物考古研究所, 2001, 『宣化遼墓壁畫』文物出版社
- 項春松·王建國, 1982, <內蒙古昭盟赤峰三眼井元代壁畫墓>, 『文物』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 of Gobeop-ri Tomb Mural Paintings

Lee, Dong-ju

Gobeop-ri Tomb Mural Paintings are considered as the first ruins confirmed that the tradition of Koryo Dynasty Tomb Murals has continued to the early Joseon Dynasty.

As well as, the Tomb Murals in Korea including Cheonmundo(天文圖) are showing a commonality as God help and 12 Zodiacs from the Tomb Murals of Koryo Dynasty that took place investigation in the past to Donghwa-ri Tomb Murals of Joseon Dynasty in Wonju last surveyed.

But Gobeop-ri Tomb Mural Paintings have shown completely different that they were Holding daily lifestyle. Also, they're distinct from the ruins of the features previously seen becaus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in the burial of the surviving relics.

So, I'd like to investigate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rial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rough the characterization of these relics.

As a result, through literature I could ascertain not only the reason why there were not identified in the tomb of Cheonmundo(天文圖), but also this is a particular feature in the early stages of Joseon Dynasty.

In addition, I've examined through comparison materials and the origin of the information on the Mural Paintings with Chinese side.

In result, the overall meaning of the contents was that let the tomb owner practice his own ritual or memorial ceremony.

The tea ceremony has been an important topic as the theme of murals featured in that since the Song Dynasty in China.

Gobeop-ri Tomb Mural Paintings were identified that their information appears under the influence of inheriting from Yuan(大元帝國).

Also, I've tried to interpret that the reason unidentified the Portrait of the tomb owner(墓主) and the painting of two horses and horsemen.

Key Words : Gobeop-ri Tomb Mural Paintings, Cheonmundo(天文圖), tea ceremony, ritual or memorial ceremony, God help, 12 Zodiacs, Song Dynasty, Yuan(大元帝國), tomb owner

